

해외 주요국 투자진출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CONTENTS

목 차

요 약 / 1

1. 싱가포르 / 5

2. 일 본 / 14

3. 중 국 / 25

4. 대 만 / 32

5. 네덜란드 / 38

6. 독 일 / 45

7. 영 국 / 52

8. 미 국 / 57

요 약

○ 싱가포르

진출현황	(지역별) 중국 등 아시아지역 투자진출 위주, 최근 중동진출 활발 (업종별) 금융보험업 위주
진출정책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무역, 투자, 해외협력 등 특 정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해외진출지원
지원기관	IE Singapore (통상산업부 소속)
지원제도	해외진출금융지원제도(IF Scheme) 국제화역량개발프로그램 해외투자개발비용에 대한 이중공제제도

○ 일본

진출현황	(지역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위주 (업종별) 자동차 등 수송기계분야, 금융보험분야 위주
진출정책	아시아지역 패키지형(민관합동) 인프라 해외진출 적극지원
지원기관	JETRO (경제산업성 산하)/AOIS(경제산업성 산하 연수전문기관)
지원제도	정보제공(미니조사서비스, 해외브리핑서비스, 해외비즈니스서포트센터운영) 사무실제공(중소기업지원센터, 미국하이테크비즈니스 지원) 인력육성지원(산업기술자 육성지원, 국내외 연수실시 등)

○ 중국

진출현황	(지역별) 홍콩, 영국령 버진제도 (업종별) 금융보험업 위주
진출정책	자국기업의 글로벌경영수준 제고를 위한 해외생산시설 및 인프라 투자 장려 / 투자절차간소화 및 외환관련수속간소화 추진
지원기관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지원제도	채정지원 (직접적인 자금지원) / 관세 및 세제혜택

○ 대만

진출현황	(지역별) 중국위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60% 이상) (업종별)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와 전자제품 및 광학기기 제조업, 도소 매업 등
진출정책	적극적인 장려책은 취하지 않음. 사안에 따른 행정지원
지원기관	대만경제부 투자업무처
지원제도	해외투자 및 기술합작 협조 및 지도방법(2005.11.21 제정)

○ 네덜란드

진출현황	(지역별) 구주지역 진출위주 (업종별) 물류(운송), 금융부문 위주
진출정책	자국기업의 효과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및 투자위험의 정부분담 등 적극지원
지원기관	EDV (경제부 소속)
지원제도	2g@there(맞춤형해외진출지원제도) Package4Growth (인도, 중국 컨설팅 지원제도)

○ 독일

진출현황	(지역별) 구주지역 진출위주 (업종별) 금융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에너지 관련산업 위주
진출정책	무역과 투자진출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 마련
지원기관	독일투자개발공사(국책은행의 자회사)
지원제도	투자프로젝트 개발 및 리스크 맞춤형 패키지지원 직접투자보증제도

○ 영국

진출현황	(지역별) 구주지역 진출위주 (업종별) 식품, 전기, 가스수도, 건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증가 추세
진출정책	무역과 투자진출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지원기관	UKTI (기업혁신부와 외무부에 공동소속)
지원제도	FIS(해외프로젝트 진출지원), 무역자문관제도

○ 미국

진출현황	(지역별) 네덜란드, 영국이 최대투자국 (업종별) 지주형태 투자, 금융업종 위주
진출정책	대외외교정책에 중점을 두어 입안, 수출 및 고용촉진여부를 기준으로 시행, 개발도상국 투자진출시 각종 금융지원책 마련
지원기관	OPIC (해외민간투자공사)
지원제도	자금지원 및 펀드투자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위주)

싱가포르

1. 해외진출동향(최근 3년)

-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9~2010년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투자진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해외 직접 투자 진출현황〉

(연말 스톡기준, 단위 : 백만불)

	2006	2007	2008
해외투자금액	246,400.5	314,471.8	298,101.8

*싱가포르 통계청 Year book of Statistics 2010 (2009년 통계는 2010년 12월 기준 미발표)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2008년 158,543백만불로 53%가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 대한 투자가 1/3가량인 48,335.9 백만불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특히 중동지역 등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진출이 활발함.
 - 2010년 기준 100개 이상의 싱가포르 기업이 중동지역에 사업운영
 - 중동지역 투자금액이 2008년기준 159억불로 2004년(2.2억불)대비 약 60배 증가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연말 스톡기준, 단위 : 백만불)

국가	연도	2006	2007	2008
브루나이		114.2	191.3	98.2
중국		33,518.9	41,786.4	48,335.9
홍콩		15,578.6	19,969.4	20,689.8
인도		2,491.8	4,638.9	5,901.2
인도네시아		16,729.8	18,966.8	18,311.3
일본		2,527.3	2,462.3	3,300.2
한국		3,334.1	3,058.7	2,266.2
말레이시아		18,924.7	22,784.3	24,341.5
미얀마		966.1	1,599.6	1,213.3
필리핀		3,345.9	4,093.5	3,945.8
대만		5,222.1	5,126.3	5,820.9
태국		13,078.0	16,950.8	18,823.4
베트남		1,661.3	2,119.0	2,196.8
프랑스		224.0	113.0	107.6
독일		598.9	595.8	670.4
네덜란드		3,058.0	3,902.4	3,348.5
스위스		594.0	4,406.2	4,557.1
영국		20,196.8	31,415.9	25,061.3
미국		8,548.1	13,578.0	14,892.4
캐나다		225.8	101.3	158.5
호주		10,872.4	17,069.3	17,203.9
뉴질랜드		1,267.7	1,521.3	943.1
중남미		59,590.0	55,145.9	51,607.9
기타지역		17,689.6	34,125.9	15,375.1
전체		246,400.5	314,471.8	298,101.8

*싱가포르 통계청 Year book of Statistics 2010 (2009년 통계는 2010년 12월 기준 미발표)

- 2008년 기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정보통신, 물류운송 분야가 각각 24%, 4%, 3%의 비중을 차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연말 스톡기준, 단위 : 백만불)

국가 \ 연도	2006	2007	2008
제조	54,761.3	67,820.3	72,596.3
건설	850.4	671.4	1,349.3
도소매	13,137.0	14,913.2	15,999.8
호텔&레스토랑	2,322.9	2,628.0	2,751.5
물류&운송	8,250.1	10,106.0	10,884.5
정보통신	13,021.5	14,569.2	14,395.3
금융&보험	133,951.1	177,903.2	149,598.9
부동산	10,744.5	13,142.2	13,571.2
전문 기술 행정 서비스	4,456.9	4,862.1	5,313.0
기타	4,904.8	7,856.1	11,641.9
전체	246,400.5	314,471.8	298,101.8

*싱가포르 통계청 Year book of Statistics 2010

2. 해외진출정책

- 기본적인 경제정책방향은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진출’을 통해 싱가포르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려는 것임
- ‘싱가포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확대, 해외파트너 발굴, 신규시장진입, 해외투자진출 등 무역, 투자, 해외협력 등 특정 형태에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3. 해외투자진출 지원기구

- 조직명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IE Singapore)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산하기구
- 주요기능
 - Connections, Competency, Capital 이라는 '3C'지원 기조 및 30개의 해외사무소로 이루어진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기업들의 수출확대, 해외파트너 발굴, 신규시장진입 및 해외투자진출 지원
 - 싱가포르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역량 및 자원 개발 지원
 - 싱가포르 기업 및 외국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개발

○ 조직구성

- 인원수

연도	2008	2009	2010
인원	515	474	511

- 예산 : 2010년 기준 \$120,243,500
(*통상산업부 전체예산 3,360백만 불의 약 3%)
- 자회사 : IE SINGAPORE HOLDINGS PTE LTD
 - 설립 : 1988년
 - 자본 51,070,000싱가포르 달러
 - 수익(Profit) : 5,384,711 싱가포르 달러(2008/2009 회계연도 기준)
 - * IE SINGAPORE HOLDINGS PTE LTD는 IE singapore CEO와 Financial controller 만 소속되어있음
- 자회사 IE SINGAPORE HOLDINGS PTE LTD에서 100% 지분보유 기업
 - International Trade Institute of Singapore pte ltd (교육 및 훈련)
 - Global Business Insights pte ltd (경영 및 사업 컨설팅)
 - Global Business Insights ltd(중국) (경영 및 사업컨설팅)

* 주로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경영 및 사업컨설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조직도 : CEO이하 총 6개 사업그룹(International Operation Group, Trade Group, Corporate Group, Capability Development Group, Customer Service Group, Enterprise Services Group)과 이들 그룹을 지원하는 Support그룹으로 구성됨

4. 해외투자진출지원제도

□ 해외진출금융지원제도(Internationalisation Finance(IF) Scheme)

- 지원기관 : IE Singapore
- 지원대상 : 해외에서 고정자산구입, 공장구입 및 건설, 프로젝트 수행기업
- 지원요건
 - 해외진출 및 확장을 위해 사용자금을 대출하려는 싱가포르 기업
 - 비 수출기업의 경우 매출액 3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 수출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은 매출액 3억 싱가포르 달러, 비 상장기업의 5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에 따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해야함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고정자산 구입 자금 및 해외프로젝트 수행 자금 조달 위한 대출지원
 -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80%, 관련 금융기관이 20% 공유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
 - 해외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을 정부가 경감시켜 줌으로써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하는 제도로 활용

〈IF Scheme 개요 및 최근 변동 사항〉

	변경 전	변경이후 (2011년 1월까지)
금융 출처	FI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	변동없음
사용 목적	1) 해외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해외 공장 구입 및 건설비용 2)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 조달 3) 사전에 보증금지불, 이행보증, 입찰 채권보증등을 요구하는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은행의 보증	해외 자산의 구입 및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대출 자금의 재융자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2010년까지 한시적)
최대 대출비용	1천 5백만 싱가포르달러	5천만 싱가포르 달러
위험공유	IE singapore : 70% 참가 금융기관 : 30%	IE singapore : 80% 참가 금융기관 : 20%

- 2009년부터 그룹단위 대출 지원한도를 1천 5백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5천만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하였고, IE Singapore의 위험책임율도 70%에서 80%로 확대

○ 지원실적 : 2009년에는 78건의 IF Scheme이 실행되었고 이들 기업이 이용한 자금은 S\$5억 3천 3백만불에 달함

〈IF scheme 세부 지원 내용〉

형태	최대기간	최대 지원 비율	이자율, 상환기간
(a) 자산관련비용			이자율, 상환구조 및 기타요구사항은 협력 금융기관에 의해 결정됨
- 공장/건물/토지	15년	90%	
- 기타 고정자산	6년		
(b) 맞춤형 대출	3년	90%	
(c) 은행의 보증	5년	100%	

○ 지원사례

- Thong Yong Internationl : 싱가포르 선박물류솔루션 기업으로 해외진출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S\$ 1,000 만불을 대출 받아 오만에 기계를 구입하였고, 이를 통해 3,800 싱만불의 해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Colben Systems : 발전소 소유 및 운영 기업으로 캄보디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높은 리스크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으나, 해외진출 금융 지원제도를 통해 고정자산 구입에 드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음

□ 국제화역량개발 프로그램
(Internalisation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me)

- 지원기관 : IE Singapore
- 지원대상 : 인력, 브랜딩,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지원범위에 속하는 기업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기업으로 IE Singapore의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된 기업
- 지원내용
 - 인력, 브랜딩,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제시장에서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 브랜딩, 디자인, 지적 재산권 보호, 인력, 프랜차이징과 라이선싱 전략, 자금조달, 조인트 벤처, 시장조사, 입찰, 해외시장 사무소 등의 분야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50~70%까지 지원
 - 비용 지원대상 범위는 인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 3차 컨설턴트 개입, 관련 지적재산권 획득 등임
- 지원계획 : 향후 2년간 4,500만 싱가포르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35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예정임.
- 지원사례
 - JobsCentral : 싱가포르 잡 포털 기업으로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 IE Singapore의 제3자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음.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초 상담을 비롯하여, 필리핀과 호주에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및 관련 데이터를 지원받음

- EtonHouse : 유치원 및 국제학교 운영 교육기업으로 중국진출을 위해 IE Singapore의 제 3자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으며, 시장실사 및 컨설팅 결과 첫 고려 대상 지역이었던 광저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쑤저우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함

□ 해외투자 개발 비용에 대한 이중공제

(Double deduction for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DD))

- 지원기관 : IE Singapore
- 지원대상 : 사전에 프로젝트 검토를 통해 승인된 기업
- 지원요건

〈이중 공제 적용 요건〉

프로젝트 요건	비용 요건
투자 타당성 조사 및 실사 조사 투자 조사 사절단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자 컨설팅 수수료 ○ 왕복항공임 및 여비 (정규직원 2명, 각 실사조사당 2회까지 지원)
해외프로젝트 개발 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및 사무실 시설 유지 관리비 ○ 왕복항공임(싱가포르에서 해외 프로젝트 개발 사무소까지 왕복, 직원 최대 3명) ○ 보수 및 체제비 (직원 최대 3명)

- 지원내용
 - 사전에 승인된 기업이 해외 투자진출을 계획, 실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를 통한 조세감면 혜택부여
 - 해외 진출을 위해 사용한 Consultancy Fee, 해외 시장 조사비용, 사업운영 비용(사무실, 설비 등), 실사를 위한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등

- 세법상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추가공제,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를 통해 어느 경우든 결과적으로 이중 공제혜택이 부여

○ 지원세부내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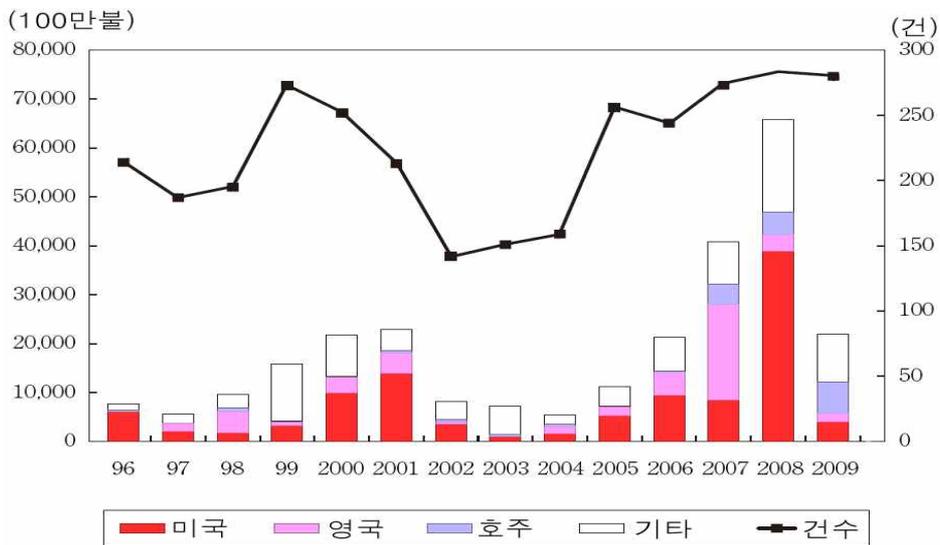
	일반기업	이중공제대상 기업
수익	100,000	100,000
이중공제 가능한 비용	0 (세법상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인 경우)	(20,000)
운영비용	(30,000)	(30,000)
과세대상수익	70,000	(50,000)
법인세 18% (회계년도09년)	12,600	9,000
이중공제 제도를 통한 혜택	없음	3,000

일 본

1. 해외진출동향(최근 3년)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일본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 M&A 추진, 금융기관의 투자확대, 자원개발권 확보를 위한 투자 등을 배경으로 역대 최고치(1,301억달러)를 기록함.
 - 2009년에는 미국·유럽 소재 현지법인의 수익 악화 등으로 인한 재투자 축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금액 규모를 볼 때는 2007년의 735억달러를 상회하였음.
 - 일본의 해외투자는 M&A(발행주식을 취득하나 유형고정자산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009년 일본기업의 대외 M&A는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66.6% 감소함(미쯔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에 의한 미국 모건스탠리 출자(79억 달러), 타케다 약품공업에 의한 미국 밀레니엄 파마세우티칼스사 매수(81억 달러) 등 대규모 안건이 잇따랐던 2008년도 수준을 대폭 하회)

〈일본 대외 M&A 금액 / 건수 추이〉



※ 출처 : JETRO 2010년 세계무역투자보고

- 2009년 M&A 건수는 278건을 기록하여 과거 2년(2007년-273건, 2008년-282건)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 2009년 대외 M&A를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이 전년대비 8배 이상 증가한 7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는 식품이나 의약품은 일본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해외 진출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임.
- 지역별로는 2009년에는 2008년도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던 대 북미 및 대중남미 투자가 각각 109억 달러(전년대비 -76.4%), 174억 달러(전년대비 -41.3%)을 기록하면서 2009년 투자위축의 최대요인이 됨.
- 대 아시아 투자의 경우 2009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1.6% 감소한 206억 달러로 집계됨. 국별로는 중국(+6.2%), 싱가포르(+164.5%), 홍콩(+23.7%)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국가로 나타남. 아시아에서 가장 큰 투자액을 기록한 국가는 중국으로, 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역대 최고 갱신.

〈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아시아	19,388	23,348	20,636
중국	6,218	6,496	6,899
홍콩	1,131	1,301	1,610
대만	1,373	1,082	339
한국	1,302	2,369	1,077
싱가포르	2,233	1,089	2,881
타이	2,608	2,016	1,632
인도네시아	1,030	731	483
말레이시아	325	591	616
필리핀	1,045	705	809
베트남	475	1,098	563
인도	1,506	5,551	3,664
북미	17,385	46,046	10,889
미국	15,672	44,674	10,660
캐나다	1,713	1,372	229

	2007년	2008년	2009년
중남미	9,482	29,623	17,393
멕시코	501	315	211
브라질	1,244	5,371	3,753
케이먼 제도	5,838	22,550	12,903
대양주	4,204	6,060	7,629
호주	4,140	5,232	7,136
뉴질랜드	△22	635	237
서유럽	20,456	22,418	17,073
독일	880	3,905	2,089
영국	3,026	6,744	2,126
프랑스	479	1,703	1,161
네덜란드	12,440	6,514	6,698
이탈리아	45	177	110
벨기에	796	2,196	423
룩셈부르크	2,291	527	3,279
스위스	61	165	221
스웨덴	254	570	160
스페인	10	210	162
동유럽/러시아 등	509	650	757
러시아	99	306	391
중동	958	1,138	575
사우디아라비아	746	892	378
아랍	60	194	139
아프리카	1,101	1,518	△301
남아프리카공화국	82	648	143
세계	73,483	130,801	74,650

※ 출처 : 재무성 '국제수지상황'

○ 2009년도 업종별 해외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전년대비 27.2% 감소한 329억 달러,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51.2% 감소한 417억 달러로 집계됨.

- 제조업 중에서는 2005년 이후 80~100억 달러 규모를 매해 기록하던 자동차 등 수송기계 분야가 2009년에 6억 달러 규모로 급감하면서 제조업 투자 감소의 최대요인이 되었음. 한편 식료품 분야에 있어서는 음료 메이커들에 의한 대형 M&A가 각 지역에서 실시되면서 전년대비 2.5배인 9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짐.

- 비제조업에 있어서는 금융·보험 분야가 2008년 대비 70.4% 감소하면서 15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년 연속 업종별로 1위 자리를 지킴. 광업의 경우, 전년대비 38.4% 감소한 65억달러의 투자가 기록되었는데, 스미토모(住友) 금속광산사에 의한 미국 알래스카 소재 광산의 개발권 취득 등 2008년에 이어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짐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제조업	39,515	45,268	32,934
식료품	12,776	3,601	8,954
섬유	371	716	477
목재·펄프	745	734	1,207
화학·의약	3,744	11,647	7,407
석유	△280	652	△51
고무·피혁	835	771	445
유리·토석	837	1,417	2,042
철·비철·금속	2,202	3,152	3,738
일반기계기구	2,642	3,726	4,411
전기기계기구	4,691	5,675	2,505
수송기계기구	8,671	10,924	566
정밀기계기구	1,293	953	609
비제조업	33,968	85,533	41,717
농림업	93	59	10
어업·수산업	64	119	36
광업	4,053	10,518	6,482
건설업	490	389	499
운수업	2,133	2,283	2,894
통신업	△331	1,675	3,870
도매·소매업	4,792	13,319	8,418
금융·보험업	19,458	52,243	15,463
부동산업	162	162	463
서비스업	1,406	2,721	2,163
총 계	73,483	130,801	74,650

※ 출처 : 재무성 '대외자산부채전고 통계'

2. 해외진출정책

- 적극적인 대 아시아 투자촉진 정책실시
 - 일본정부는 2010년 6월에 발표한 '신성장전략'中 7대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아시아경제전략'을 내걸고 있음
 - '아시아경제전략'에 따르면 환경 및 제품안전 분야의 기준, 규격부문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본기술 위주의 표준화를 추진예정.
- 아시아 지역의 개발프로젝트(고속철도, 도시 교통, 물, 에너지 등 인프라 정비지원, 환경 공생도시 등)에 민관합동진출 추진계획
 -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관련, 내각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조정이나 조사심의 예정
 - 기타 국제협력은행(JBIC), 국제협력기구(JICA) 관련 정부기관의 기능 확대나 지방자치체 수도국(水道局) 등 공익사업체의 해외진출지원 검토예정

3. 해외진출지원기관

- 일본정부는 크게 재무성, 경제산업성, 일본은행으로 나뉘어 해외직접투자 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재무성은 해외직접투자 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허가를 담당하며 일본은행은 해외투자기업의 신고접수 및 사후 관리를, 경제산업성은 해외투자의 실태조사와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원활화와 지원에 대한 일본의 소관부처는 경제산업성(무역 진흥과 해외투자 담당)이나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JETRO 등 관련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활동에 국한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경제산업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 주요기능

- 중소기업 위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 경제정보 조사, 분석
- 무역·해외투자 관련 상담 접수
- 외국기업의 대일 진출 지원
- 무역거래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 조직구성

- 직원수 : 1,540명 (2010년 현재)
- 예산 : 2009년도 기준 40,219,630,000엔

○ 조직도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이하 총 11개 사업그룹(총무부, 기획부, 무역투자 상담센터, 해외조사부, 대일투자부, 농림수산부, 해외시장개척부, 재외기업 지원·지적재산부, 무역개발부, 산업기술부, 전시사업부)과 연구기관인 아시아 경제연구소로 구성

□ 재단법인 해외기술자연수협회 (AOTS) : 경제산업성 산하 연수 전문기관

○ 주요기능

- 산업기술자 육성지원 연수사업
- 중소기업 연수사업(일본 중소기업 해외거점의 기술수준 향상,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등)

○ 조직구성

- 직원수 : 174명 (2010년 현재)
- 예산 : 2010년도 기준 8,349,281,000엔

○ 조직도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하 총 7개 사업그룹 (경영전략실, 기획부, 총무부, 사업추진부, 업무부, 연수부, 일본어 교육 센터)과 4개 지부(도쿄, 요코하마, 칸사이, 추부)로 구성

4. 해외진출지원제도

□ 해외진출정보 제공 / 현지경영 애로사항 지원

○ 지원기관 :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지원내용

1) 해외 브리핑 서비스(무료)

- 지원내용 : 세계 약 70개소 소재 해외사무소에서 해외주재원이나 전문 어드바이저가 현지 투자 관련 정보나 산업동향, 생활환경 등 제공
- 대상 및 요건 : 일본에서 법인 등기가 이뤄진 회사(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음), 방문 예정일자의 2주일 전 신청, 제3자에 의한 대행 신청에 대해 서는 제외, 위법성 있는 사업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

2) 해외 미니 조사 서비스(유료)

- 지원내용 : 비즈니스 참고를 위한 조사대행(최저기본요금 10,500엔)
- 대상 및 요건 : ① 일본 국내 소재 기업, 단체, 지방공공단체, ② 제3자에 의한 대행 신청에 대해서는 제외, ③ 위법성 있는 사업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 ④ JETRO 해외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

3) '해외비즈니스 서포트 센터(인도, 타이, 필리핀)' 운영

- 지원내용 : 거점설립을 위한 단기 사무소 스페이스 제공(유료), 전문 어드바이저에 의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대상 및 요건 : 일본에서 법인 등기가 이뤄진 회사(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음), 해당 국가에서 거점을 보유하지 않을 것(인도는 국토가 넓으므로 이미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해당 국가에서의 거점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JETRO가 해당 국가 진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하는 것, 센터 입주자가 해당기업의 사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 담당자인 것
- 사무소 공간 제공 사업 실적(누계) : 타이 269사, 필리핀 52사, 인도 69사

4) '중소기업 지원 센터(하노이)' 운영

- 지원내용 : 베트남에서 거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단기 사무소 스페이스 제공(유료), 전문 어드바이저에 의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 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진흥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 베트남에서의 거점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 베트남 현지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JETRO가 해당 국가 진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하는 것, 동 센터 입주자가 해당기업의 사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 담당자인 것
- 사무소 공간 제공 사업 실적(누계) : 14사

※ 일본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중소기업 정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3억엔 이하 또한 상시 고용 종업원수 3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 도매업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1억엔 이하 또한 상시 고용 종업원수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 소매업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5천만엔 이하 또한 상시 고용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 서비스업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5천만엔 이하 또한 상시 고용 종업원수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5) 미국 하이테크 비즈니스 전개 지원(유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대상 미국 유력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 대상 및 요건 : 첨단기술 분야(IT, 바이오, 나노, 크린 테크놀로지 등)에 있어서 자기의 기술·제품을 핵으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 있고, 미국에서 거점을 설치해서 사업의 진척·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아래 i~iii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i) 일본 국내에서 본점 등기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 ii) 일본 국적을 보유하는 기업 예정자
 - iii) 일본의 중소기업 또는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이 이미 미국에서 설립한 기업으로서 아래 a, b 양쪽에 해당하는 것 <a. 미국 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비율 총액의 50% 이상을 일본기업(또는 일본국적 보유 개인)이 소유 / b. 당해기업이 미국에서 설립된 후 3년 이내인 것> 미국에서 자택 외에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것, 지원 결정부터 6개월 이내에 사무소에 입주자를 배치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입주 전에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응모시에 실질적·계속반복적인 판매나 사업제휴가 없는 것, 미국에서 기술발굴, 기술연수, 인재과견, 판매대리, 인큐베이션 등의 사업은 제외

6) 해외 기 진출 기업 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 해외사무소에서 현지경제·산업·제도 정보, 비즈니스 환경 정보 등 제공, 기타 고용·세무 등 개별문제에 대해 해결지원(무료)
 - 해외사무소내 전화, 팩스, 이메일로 투자/무역 관련 상담 접수(무료)
- 대상 및 요건 : 기 해외진출기업

□ 해외인력 육성 지원사업

○ 지원기관 :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 1959년에 설립되어 일본 국내에서 연수센터를 4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를 인도네시아·필리핀·타이·인도 등에 보유함. 설립이래 현재까지 170개국 이상, 총계 약 32만명에 달한 인력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1) 산업기술자 육성지원 사업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산업인력 육성 및 일본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 전개 시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육성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ODA)과 민간자금으로 운영됨.

2) 일본국내 수용 연수

- 개발도상국의 기술자나 관리자를 일본에 초대하여 실시하는 연수임. 민간기업 등의 생산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연수'와 참가자가 AOTS 연수센터에서 합숙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관리연수'가 있으며 일본국내 수용 연수의 1959년~2008년 누계 실적은 149,130명임
- '기술연수'는 AOTS 연수센터에서 실시되는 일반연수(현장연수 시 필요한 일본어 습득,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 습득)와 관련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장연수로 나뉘어짐.
- '관리연수'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매니지먼트 수법 등 관리자 능력향상을 위해 AOTS 연수센터에서 실시되는 연수이며, 일본기업의 선진적인 사례 견학이나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통하는 실전적인 연수임

3) 해외 연수

- 해외 연수는 '협회기획형' 코스이며 일본에서 해외로 강사를 파견해서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는 집단연수임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8개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장 개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물류 관리' 등을 테마로 2일 정도의 단기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해외 연수의 1959년~2008년 누계 실적은 178,283명임.

□ 진출기업 세제지원

- 내용 : <특별준비금>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 근거법 : 조세특별 조치법 제 55조
- 조건 : 내국법인으로 특정 해외법인에 정해진 비율(15%~100%)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내용 : 사업연도 다음해부터 5년치후 5년간 균등 이익금 산입가능

중 국

1. 해외진출동향(최근 3년)

- 중국은 세계 1위(2.45조불)의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음.
-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3년 이후 매년 두자리 수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역대최고 수준인 565.3억 달러를 기록.

〈해외투자액 증가추이〉

(단위 : US\$억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당해기준	28.5	55.0	122.6	211.6	265.1	559.2	565.3
누계기준	332	448	572	906.3	1,179.1	1,839.7	2,457.5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국가별 투자현황(누계기준)을 살펴보면 2009년말 현재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 지역은 18개이며 홍콩, 영국령 버진제도 케이맨제도, 호주,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순으로 나타남
- 누계기준 전체 투자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181.7억 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로 △EU 62.8억 달러 △호주 58.6억 달러 △미국 33.4억 달러 △캐나다 16.7억 달러 △일본 6.9억 달러 등의 분포를 보임

〈2009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순위	국가/지역	투자규모(누계기준, 억 달러)
1	홍콩	1,644.90
2	영국령 버진제도	150.61
3	케이맨제도	135.77
4	호주	58.63
5	싱가포르	48.57
6	미국	33.38

순위	국가/지역	투자규모(누계기준, 억 달러)
7	룩셈부르크	24.84
8	남아공	23.07
9	CIS	22.20
10	마카오	18.37
11	캐나다	16.70
12	하자크스탄	15.16
13	파키스탄	14.58
14	몽고	12.42
15	한국	12.18
16	독일	10.82
17	영국	10.28
18	나이지리아	10.26
19	미얀마	9.30
20	잠비아	8.44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해외투자업종의 경우 국내 산업구조의 현대화적 개편에 따라 해외투자 대상 산업도 다각화됨. 광업비중이 15% 이상으로 단일 산업분야로는 비중이 가장 높고, 상업 서비스, 금융, 도소매, 교통운수, 부동산 등 서비스업이 70% 이상 차지하며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 2009년말 누계기준 업종별 투자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729.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9.7%)하고 있으며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 이어 금융업, 채광업, 도소매업, 교통운수·창고 및 우편서비스, 제조업, 부동산업, 건축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 및 지질 탐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09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순위	업종	투자규모(누계기준)	
		금액(억 달러)	비중(%)
1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729.5	29.7
2	금융업	459.9	18.7
3	채광업	405.8	16.5
4	도소매업	357.0	14.5
5	교통운수·창고 및 우편서비스	166.3	6.8
6	제조업	135.9	5.5
7	부동산업	53.4	2.2
8	건축업	34.1	1.4
9	과학연구·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28.7	1.2
10	전력·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및 공급업	22.6	0.9
11	농·림·목축·어업	20.3	0.8
12	정보전송·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업	19.7	0.8
13	수리·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10.7	0.4
14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9.6	0.4
15	숙박 및 요식업	2.4	0.1

자료원 : 중국 상무부

2. 해외진출정책

- 중국은 중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되고 자국내 제품, 설비, 기술, 노동력 수출을 견인하는 해외 생산시설 및 인프라 투자와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장려하고 있음
- 자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선진기술, 관리경험을 배울 수 있는 해외 R&D 센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외무역, 은행, 전자정보, 물류·해상·운송 등에 참여하도록 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둬
- 진출기업지원을 위하여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관련 정보제공 확대하고 있음

- 2009년 3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資管理辦法)'를 발표해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심사권한을 완화
 - 미수교국 등 특정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만 중앙부서인 중국 상무부에서 허가하도록 규정
 - 향후 중국 해외투자 중 약 85% 정도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심사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일임 예정
 - 해외투자합작 국별(지역)가이드라인'과 '국별 투자 경영애로 보고총편'을 발표해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 등에 관한 정보제공, 대외투자 합작정보 서비스시스템'을 통해 투자기업체 경영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 해외투자 진출 외환관련 수속간소화를 추진
- '09년 6월 외환관리국은 '국내기업의 해외대출 외환관리 관련 통지'를 발표해 2009년 8월 1일부로 해외대출주체 자격조건 완화
 - 대출주체를 중국기업 및 다국적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특정 조건을 부합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2010년 4월 22일 개최된 제3기 중국기업 대외투자세미나에서 국가외환관리국 자본사 순루쥘(孫魯軍)부사장은 빠른 시일 안에 '국내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 해외투자기업의 융자난 해소를 위한 정책 발표 예정
 - 해외대출 심사절차와 수속을 간소화하고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유출입 관련 통계 구축 및 예비경보체제 가동예정

3. 해외진출지원기구

중앙정부 -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주요업무

- 상무부 산하의 투자촉진사무국이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진출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상무부, 지방정부 및 개발구 등을 대표하여 중국과 외국 간의 투자교류 확대를 위한 진흥활동을 수행
- 주요 기능은 조사 및 정보제공, 외국 경제단체와의 교류, 기업의 법률관련 사항 지원, 사절단 파견, 전시회 참가, 연수 및 교육 등임
- 내부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부 △재무부 △종합연구부 △대외연락부 △정보컨설팅부 △대외투자협작부 △전시협조부 △국내연락부 △업무개발 및 연수부 △인터넷 운영부 △프로젝트 운영부 등으로 구성
-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중국 행정기관 특성 상 공개하고 있지 않음

지방정부 : 지방정부 - 각 지방정부 상무청, 개발구 등

- 지방정부의 경우 기존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상무청, 투자촉진 센터, 개발구 등이 일부 해외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해외진출지원제도

재정지원

- 관련법령 : <대외경제기술협작 전문자금 관리방법(對外經濟技術合作專項資金管理辦法)> (2005.12 발표)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지원정책(走出去)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 마련

○ 지원기관 : 재정부

○ 지원대상 및 요건

- 해외투자, 해외 농림수산 분야 합작, 해외도급 프로젝트, 해외노무합작, 해외첨단기술 연구개발, 해외설계컨설팅 등 해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업은 △중국 내 독립법인 보유 △최근 5년간 위법행위 무기록 △반환대상 재정자금의 미납기간 3년 이내 △정부가 허가한 대외경제 기술합작업무 서면문건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 프로젝트는 △정부의 허가 및 등록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효력을 보유한 프로젝트 등의 요건을 보유해야 하며 프로젝트별로 △해외투자 프로젝트 및 농림수산 합작 프로젝트의 중국 측 투자액은 100만 달러 이상 △해외도급 프로젝트 계약액 500만 달러 이상 △대외노무합작 프로젝트는 당해 누계 계약금액 50만 달러 이상 △해외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 및 해외 설계컨설팅의 투자 또는 계약액 50만 달러 등의 금액 요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함

○ 지원내용

- 사전 준비비용 : 법률,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비용, 광산 검측 및 조사비용, 타당성 보고서 작성 비용, 규범성 문건 등 자료 비용
- 운영비용 : 해외 첨단기술 연구(실험장소 임차료, 기자재 임차 및 구입비, 기술특허 사용료 등), 해외 설계컨설팅(설계 컨설팅 기구가 필요로 하는 해외 설비, 소프트웨어 임차 및 구입비용) 등
- 기타비용 : 해외자원 회수 운송비, 보험료, 노무과건 인원 비용보조 등
- 지원금액 : 직접적인 보조비용 비율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실제 지불 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한 개 프로젝트 당 한 차례만 지원

□ 세제혜택

○ 관세혜택

- 지원기관 : 해관
- 지원대상 및 요건 :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 시 합영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한 이윤을 태환가능한 화폐로 회수가 어려워 현물을 통해 중국 내 반입하고자 하나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입관세를 감면
 - 단, 가공제품의 재반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

○ 세제혜택

- 지원기관 : 세무총국
- 지원대상 및 요건 : 투자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
- 지원내용 : 투자 후 5년 내 납세대상 이윤에 대해 면세혜택 부여

대 만

1. 해외진출동향 (최근 3년)

- 대만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은 중국,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조세 회피처로서 특히 중국 투자의 경유지로 이용), 미국 등이며, 투자총액의 약 60%가 중국에 집중
- 중국 정부기관 통계상의 대중 투자금액과 대만 기업 수는 대만 정부의 집계수치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집계됨. 이는 대만기업의 중국투자가 제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가 많아 대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중 투자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년도	對중국		해외(중국제외)	
	건수	총액	건수	총액
2007년	996	9,971	464	6,470
2008년	643	10,691	387	4,466
2009년	590	7,143	251	3,006
2010년 1~11월	775	12,183	228	2,553
~2010.11 누계	38,546	94,886	12,830	65,327

주 : 對中 누적투자통계는 1991년도 이래 투자규모, 기타 대외 누적투자통계는 1952년도 이래 투자규모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2009년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590건, 투자금액은 71억여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업종으로는 전자부품제조업(25%), 컴퓨터와 전자제품 및 광학기기 제조업(14%), 도매 및 소매업(10%) 등이 있고 지역별 투자규모는 江蘇省(38%), 廣東省(18%), 上海市(13%) 순
- 대만기업의 산업별 대중국 투자 집중지역으로는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쑤저우(蘇州), 전통산업은 쿤산(昆山), 서비스업은 상하이(上海)가 선호

- 2009년 중국을 제외한 대외투자는 건수로 251건, 투자금액은 30억 달러로 투자건수와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0% 이상씩 급감. 지역별로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투자경유국인 카리브해 영국령지역을 제외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브라질, 파나마 등 남미 지역을 위주로 투자

〈국별 해외직접투자현황(중국 제외)〉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8	2009	2010.1~11	증감율	'52~'10.11	비중
1	카리브해 영국령지역	1,686	544	555	2.97	23,059	35.30
2	베트남	639	243	535	128.91	2,880	4.41
3	미국	400	1,114	475	-51.06	12,258	18.76
4	말레이시아	28	84	305	265.17	2,126	3.25
5	홍콩	337	241	226	-3.38	3,539	5.42
6	브라질	14	8	95	1,087.50	180	0.28
7	파나마	0.8	2	80	3,907.89	1,282	1.96
8	사모아	150	131	65	-36.91	1,232	1.89
9	일본	52	103	40	-60.09	1,325	2.03
10	네덜란드	54	65	32	-50.49	1,388	2.12
	전체	4,466	3,006	2,553	0.10	65,327	100.00

주 : 2010년 투자금액순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해외투자의 약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금융지주업의 투자규모도 급증함. 금융위기 전에는 전자 부품 제조업이 2대 투자업종으로 대외 투자가 활발했으나 금융위기 타격으로 투자가 급감한 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 투자총액 기준 3대 업종인 도매·소매업 역시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투자금액이 급감한 이래 2010년도까지 해외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음

〈업종별 해외직접투자현황(중국 제외)〉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2008	2009	2010.1~11	증감율	'52~'10.11	비중
1	금융·보험업	1,461	1,038	673	-13.58	22,006	33.69
2	금융지주업	338	357	566	71.66	7,886	12.07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1	4	302	7,145.41	1,078	1.65
4	전자부품 제조업	903	350	171	-50.85	7,182	10.99
5	금속제품 제조업	84	132	159	52.45	1,047	1.60
6	도매·소매업	329	286	156	-44.59	5,010	7.67
7	화학재료 제조업	26	145	154	5.91	1,713	2.62
8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제조업	68	63	65	3.02	2,973	4.55
9	운수·창고업	125	62	58	-7.34	1,851	2.83
10	전력장비 제조업	21	36	26	-23.54	792	1.21
	전체	4,466	3,006	2,553	0.10	65,327	100.00

주 : 2010년 투자금액순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한편, 중국-대만간 2010년 6월 ECFA 체결 등 양안간 정치적 화해 무드와 경제적 상호협력의 가속화에 따라 대중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최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8인치 웨이퍼 0.13 μ m 공정의 대중국 투자진출 승인을 받았으며, 에피칩 세계 1위 에피스타가 7천만불 대중국 투자를 결정하는 등 대규모 중국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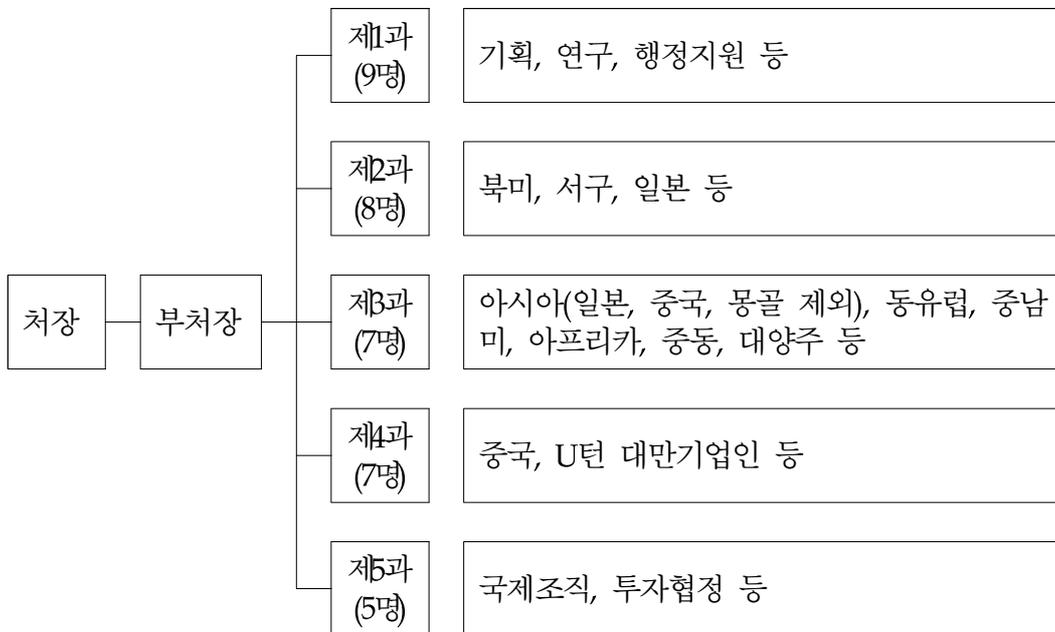
2. 해외진출정책

- 대만정부는 해외진출 관련 협조하지만 장려하지는 않는 태도를 취함. 대만기업이 해외진출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지만 법률상 장려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3. 해외진출지원기구

- 기관명 :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經濟部 投資業務處)
- 웹사이트 : www.dois.moea.gov.tw
- 설립시기 : 1959년 2월
- 조직현황 : 처장, 부처장, 5과 (38여명)

〈투자업무처 조직도〉



- 예산('10) : NTD1.69억 (약 60억원)
- 주요기능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업무지원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애로해결 지원, 대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해외 첨단기술 도입 및 해외 우수인재 국내유치 등
 - 투자업무처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 및 대만의 대외투자를 심사, 허가하는 투자심의위원회(www.moeaic.gov.tw)가 있음.

4. 해외진출지원제도

□ “해외투자 및 기술합작 협조 및 지도방법(2005.11.21 제정)”

- 해외진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보조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기관 : 경제부

○ 지원대상

- 해외투자 : ▶ 외국회사의 지분 또는 출자금 보유(단기해외유가증권 제외)
▶ 해외 지사/현지 법인/합자회사 설립 ▶ 상술 투자사업에 대해 1년 이상
대출 제공

- 기술협력 :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 전문기술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제공
하고 외국 정부/법인/개인과 지분이 아닌 일정의 대가를 취득하는 협력

○ 지원내용

- 해외투자 정보 수집 및 컨설팅

- 해외 대만기업 글로벌 경쟁력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원하여 자국업체의 해외투자 및 기술협력을 지원
- 인터넷 사이트 구축/서적 발간/투자세미나 개최/산업전문가 요청 해외 고찰 또는 해외투자정보 수집하여 업체의 해외 투자환경 및 니치시장 정보 연구분석 지원

-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전문기술 및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산업서비스단을 조직하여 해외로 파견하여 해외투자 업체의 진단 / 심층지도 / 경영관리 / 기업의 전자화 / 기술 업그레이드 / 마케팅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체의 경영효율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해외투자 장벽 해소

-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무역회의를 통해 양자 협정 체결 또는 외국 정부와 관련 조치 협상을 추진하여 해외투자 장벽 해소

- 해외시장 개척
 - 투자구도 고찰단/무역사절단 또는 기타 관련 조치를 실시하여 업체의 해외투자구도전략 진행과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해외기술협력 지원
 - 인터넷 사이트 및 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기술거래 정보 제공/분야별 기술거래 상담회 또는 국제적 기술거래 박람회 개최로 해외 기술협력 지원
- 인재 육성
 - 해외 경영관리/외국어 및 경제무역업무 인재 양성으로 해외 사업 경영 지원
- 해외투자금융 및 금융보증
 - 자국 기업 또는 재투자 사업이 해외투자를 추진할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해외투자용자/용자보증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 지원
 - 관련 기관과 협조 하에 합자기금을 설립하여 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 업체가 유관기관에 해외투자 보조 신청하는 데 협조
- 기타 해외투자 혹은 기술협력 관련 사항
 - 대만기업협회 조직과 협조하여 업체의 해외긴급구제 / 투자분쟁 해소 / 투자노하우 공유 지원

네덜란드

1. 해외진출동향(최근 3년)

- 네덜란드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연간 약 6천억 유로로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에도 해외투자가 증가세를 보임. (2009년 6천6백억 유로, 전년대비 3.9%의 증가)
- 주요 투자대상국은 영국(2009년 925억 유로),미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 순임.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유로)

국가명	2007	2008	2009
영국	93,917	87,459	92,520
미국	65,136	71,591	80,626
독일	65,343	65,486	59,952
벨기에	74,989	64,088	59,756
스위스	42,852	43,399	53,098
룩셈부르크	32,533	43,242	45,482
프랑스	37,613	34,454	32,785
스페인	28,859	26,403	26,064
이탈리아	21,419	19,993	17,868
아일랜드	12,300	12,210	12,131
일본	3,338	5,322	5,938
스웨덴	5,876	5,332	5,020
Netherlands Antilles and Aruba	2,392	2,241	2,293
기타	97,226	103,119	114,036
합계	639,960	635,335	660,258

자료원 : 네덜란드중앙은행(DNB)

- 업종별로는 산업(제조)부문이 서비스 부문보다 투자액 면에서 소폭 많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2009년 기준 광업 및 석유화학 분야 전체 해외투자의 3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식음료 및 담배, 금속 및 전기엔지니어링, 은행 및 보험, 운송 및 물류·통신 순임

- 서비스 부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산업인 물류(운송)와 금융부문의 해외투자가 가장 많음.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유로)

구분		2007	2008	2009
제조부문	광업 및 석유화학	175,494	190,551	203,852
	금속 및 전기엔지니어링	41,824	47,736	47,509
	식음료 및 담배	48,760	56,610	60,361
	기타산업	22,173	27,116	27,369
	산업합계	288,251	322,013	339,091
서비스 부문	운송 및 물류,통신	34,668	34,739	35,306
	은행 및 보험	43,338	30,278	35,392
	기타서비스	234,524	215,629	217,210
	서비스합계	351,709	313,322	321,167
총계		639,960	635,335	660,258

자료원 : 네덜란드중앙은행(DNB)

2. 해외진출정책

- 투자진출지원정책의 목적은 자국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진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지원(시장조사, 진출타당성 검토 등)과 해외투자의 위험을 정부에서 일부 분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해외진출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인 2g@there, 중국과 인도에 한정해 자본재 투자를 지원하는 Package4Growth 등이 있고 ODA와 연계해 공적자금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는 ORIO, PSI 등이 있음.
- 네덜란드의 해외투자진출 지원은 2004년초까지 Center International 이라는 기관이 담당했으나 2004년 4월 1일부로 동 기관이 네덜란드의 국가무역진흥기관인 EVD로 통합되었으며 해외진출지원업무도 EVD에서 담당함.

3. 해외진출지원기구

- 조직명 : EDV
 - 네덜란드 경제부의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1개 부서로 동 부서는 21개의 Unit(課)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은 별도로 없음
- 조직구성
 - 국내 조직 : 340명 내외
 - 해외 조직 : EVD에 직접 소속된 해외 조직은 없으며, 외교부 해외 Network 및 NBSO (Netherlands Business Support Office) 조직을 활용함.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은 EVD의 설립목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기업의 해외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네덜란드는 경제부 소속인 EVD 본부가 외교부 소속인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 업무수행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 . 대사관 및 영사관이 없는 지역에는 NBSO를 설립하여 자국 기업 활동을 지원, NBSO는 EVD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 NBSO에서 일하는 직원은 EVD 직원이 아닌, 일종의 단기 계약직원 신분으로 EVD의 업무만 수행(일종의 파견 근로자 형태)

〈NBSO(Netherlands Business Support Office)〉

- 중국, 일본 등 세계 11개국에 18개 NBSO를 운영중이며, 네덜란드 자국인 채용 파견자와 현지채용 직원에 의해 업무 수행(2~3명 소규모)
- 주요 기능은 자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진출 지원 업무 수행
- 18개 NBSO는 EVD가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NCH(네덜란드의 무역협회)에서 관리 운영(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
- 자국인 책임자는 업계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전문가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고용 계약(NCH와 파견자간)형태로 해외파견
- EVD 소속 직원은 NBSO에 파견 근무하는 사례는 없음

○ 주요기능

- 1936년 설립된 EVD는 설립 이후 네덜란드 수출업체들에게 해외시장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부의 해외 통상정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Think Tank 역할을 병행

〈EDV와 Senter International 기관통합〉

- 기업의 해외투자 서비스를 지원해온 Senter International이 2004.4.1일부로 EVD에 통합됨으로써 EVD는 본래 수행해온 수출마케팅지원 기능과 함께 Financial Programmes을 포함하는 해외투자진출 및 정부차원의 대외협력 기능까지 수행
- Senter International는 1980년 무렵부터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적으로 해외 투자를 장려 지원하는 업무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제부 산하에 해외투자진출지원을 위해 설립된 바 있음.
- 두조직의 통합 배경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Single Window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유사한 기능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정부 조직 운영의 방만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
- 통합 이후 개발도상국 진출과 관련된 사업과 서비스를 강화함과 아울러 과거 민간기업의 해외 비즈니스지원에 국한해 오던 기능이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해외 협력사업까지 확대되어 국가 TPO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됨.
- 이에 따라 EVD의 주요지원 대상은 과거 민간 수출 기업에서 정부의 개도국 원조 자금으로 수행하는 경제개발지원 Project사업 수행기업, 개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Corporate Governance, Legistration, Enforcement, 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로 확대됨

4. 해외진출지원제도

□ 2g@there

- 지원기관 : EDV
- 지원내용
 - 수출 및 투자를 포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들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타당성)조사, matchmaking,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G2G 프로젝트 진출 시 각종 장벽제거 지원, 재외공관을 활용한 경제외교 지원 등이 있음.
- 지원요건 및 기준 (하기항목에 대한 종합심사)
 - 최소 8개 이상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이어야 함
 - 정부의 지원이 해외진출에 필수적인지 여부 판단
 - 해외 진출분야에 대해 장기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 해당 진출분야에서 국제적인 지위에 도달하려는 야심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전략이 네덜란드 기업의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는지 여부 등
- 지원 세부사항
 - 재외공관의 협력하 경제외교지원
 - 각종 재정적(보조금) 지원
 - 경제/무역 사절단 구성과 관련해서 타당성 있다고 간주되는 비용의 100%
 - 15만 유로 범위내 해외진출 업무를 위한 컨설턴트 이용 또는 채용 비용의 50%(3년간)
 - 수혜자당 최대 지원액은 45만 유로

- 최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전시회 임차·장치·운영비용의 50%
- 중소기업이 일상적/지속적인 활동이 아닌 대외 컨설팅 비용의 50% 등
- 재정적 지원내역

활동(수행업무)	지원액(전체 금액중%)			최대 지원한도 /EUR (VAT포함)
	Year 1	Year 2	Year 3	
Information Studies	50	50	50	
Visits and meetings	50	50	50	
Fairs and exhibitions	50	50	50	
Economic missions	0	0	0	
Placement of students	50	50	50	
Hiring of consultants	50	50	50	150,000
Investment projects	50	50	50	
Coordination	50	50	50	150,000

○ 지원사례

- 인도의 오락·미디어 분야와의 협력 및 시장진출을 위해 네덜란드의 14개 회사와 EVD가 협력하여 Media & Entertainment-INDIA(ME-India)를 구성하여 양국의 음향 및 영상제품,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을 도모
- Me-India의 주요 목적
 - 인도의 오락 및 미디어 분야의 이해도 증진
 -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 확충
 - 네덜란드 오락 및 미디어 분야의 인도시장에 대한 상업적 진출기회 모색
- Me-India의 주요 활동
 - 인도 및 네덜란드의 오락 및 미디어 시장/기회 조사 및 전파
 - 양국간 세미나 개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기업들간의 네트워킹
 - 미디어·오락시장 진출을 원하는 양국 기업들에게 파트너쉽 수립기회 제공

□ Package4Growth

○ 지원기관 : EVD

○ 지원내용

- 중국 및 인도 시장 진출확대 지원을 위해 해당국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수집을 위한 컨설팅, 수출, 투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상반기까지는 컨설팅, 수출, 투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컨설팅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음.

○ 지원요건 및 기준

- 지원대상 : 중국 또는 인도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수행코자 하는 기업으로 선착순 지원이며 EVD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심사
- 지원대상 분야(하기 분야에 한해 지원)
 - 중국 : 에너지, 산업/기술, 인프라스트럭처, 농업, 물관리, 운송 및 물류
 - 인도 : 농산업, 바이오기술, 건설, 의료, 기술개발, 통신인프라, 물류, 물(관리), 운송장비, 혁신산업, 재생에너지 및 환경

○ 지원 세부내역

- 대상국(중국, 인도)진출을 위한 정보 및 지식수집 컨설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컨설팅 비용의 50%를 최대 10만유로 한도내 지원(최저 1만유로)

○ 지원실적

- 2010년 10월 기준, 인도관련 컨설팅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2건이 진행중이며, 1건은 시작준비 단계. 이중 2건은 의료분야, 1건은 기계제작, 1건은 조선분야임. 총 프로젝트 지원액은 80만 유로.

독 일

1. 해외진출동향(최근3년)

- 독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2009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 1분기 이후부터 상승세를 보임. 2010년 2분기 기준 독일의 해외 FDI 투자 규모는 총 268억 6,000만 유로로 전년동기(161억 1,600만 유로) 대비 66.7% 증가하였음
- 독일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인근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투자는 여전히 금융위기 불안심리로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의 해외 FDI 투자 대상국 1~5위는 모두 인근 유럽국으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국가명	'08년	'09년	'09년		'10년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룩셈부르크	3,760	12,363	8,695	-1,620	-3,828	2,097
영국	6,907	8,929	3,146	6,282	7,777	1,084
이탈리아	368	6,302	494	1,510	800	707
프랑스	-1,831	4,038	621	1,705	4,767	1,867
아일랜드	402	2,962	437	1,010	94	256
미국	7,271	2,710	3,180	2,429	6,788	6,193
중국	1,285	2,485	78	873	1,469	399
덴마크	729	2,015	72	328	467	166
오스트리아	4,030	1,875	2,783	-482	1,189	434
한국	190	105	-108	-39	6	-102
총계(국가전체)	91,882	45,138	13,630	16,116	34,144	26,860

자료원 : 독일 연방은행(순위는 '09년 통계를 기준)

- 2009년 독일의 주요 10대 투자국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가 123억 6,3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음.
- 한편, 2010년(상반기) 미국에 대한 독일의 투자는 예년수준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덴마크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산업별 순유출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기업 대상 서비스업, 기타 비분류 산업부문, 에너지 및 수자원의 순으로 나타남. 대다수의 산업 부문에서 투자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에너지 및 수자원산업의 경우 124.7%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외에도 금융 및 보험업,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각각 17.0%, 6.7%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시현함 반면, 가공업과 유통업(자동차 및 소비재 수리 및 정비 포함), 운송 및 정보통신업 등의 경우 경기 위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짐.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업종 분류	'07년	'08년	'09년
농림어업	9	51	17
광산업	1,694	225	87
가공업	22,603	13,605	-7,096
에너지 및 수자원	14	2,087	4,689
건설업	205	-592	246
유통업(자동차 및 소비재 수리 및 정비 포함)	1,134	3,468	-5,191
숙박업	185	-34	-29
운송 및 정보통신업	2,468	10,110	-2,033
금융 및 보험업	9,420	17,333	20,271
부동산업 및 기업 대상 서비스업	49,211	31,006	18,148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209	989	1,055
기타 비분류 산업부문	31,988	13,633	14,974
투자 총액	118,723	91,882	45,138

자료원 : 독일 연방은행

주 : 동 수치는 현재 집계 가능한 최신수치임.

2. 해외진출정책

- 정부의 해외진출지원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짐
 - 현존하는 시장진출의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며, 세계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과 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즉 EU나 OECD 및 WTO 등의 협상에서 시장 환경 준수 및 개선노력.
- 독일 정부는 기업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진출과 투자진출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컨설팅을 비롯하여 특수 리스크나 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지원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3. 해외진출지원기구

- 조직명 : 독일 투자개발공사
(DEG : 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 주요업무
 -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개도국 리스트에 준하여, 총 151개에 이르는 개도국 투자금융지원을 담당.
 -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을 중점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자체사무실을 개설하여 활동
 - DEG는 약 50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금융지원 뿐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 있어 개별컨설팅을 지원. 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리스크 맞춤형 금융패키지를 제공.

○ 조직구성

창립	1962
소재지	쾰른
자기자본	13.4억 유로
대주주	독일 재건은행(KfW : Kredit fuer Wiederaufbau)
직원	418명

4. 해외진출지원제도

□ 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리스크 맞춤형 금융패키지

○ 지원 기관명 : 독일투자개발공사(DEG)

○ 지원대상 : 개도국 투자기업

○ 지원요건 : 개발정책 및 경제관점에서 의미 있는 민간경제 프로젝트

○ 지원내용

- 장기 대출, 메자닌 금융지원, 지분참여 및 보증 등의 금융지원, 컨설팅 서비스, 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리스크 맞춤형 금융패키지 제공
-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수행대행으로 투자사전준비 및 진행단계 지원

○ 지원금액

-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나, 지원 관련 요금은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지원 지역 및 추정 리스크에 따라 별도로 산정

○ 지원실적

- '09년 신규 사업 10억 1,500만 유로
- '09년 연말 집계 실적 총 47억 100만 유로

○ 지원사례

- 인도네시아 섬유 및 방사제조사 Indorama 그룹에 여러 차례의 금융 대출 지원, 신생기업의 제조 및 영업 확장과 다각화에 기여, 현재 Indorama는 총 7,400명 이상의 고용인원 보유, 연간 몇 천만 유로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참여에 있어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
-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첨가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여 건설소재 분야의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은 독일기업 MC Bauchemie의 러시아 소재 자회사에 금융대출, 특히 이 자회사는 단기간에 시멘트 소재 건조 모르타르 분야 러시아 최대규모 제조사로 성장

□ 독일 연방정부의 직접투자보증제도

○ 지원기관 : 연방정부 산하 Agaportal

(PWC와 Euler Hermes의 컨소시엄 형태)

○ 지원대상 : 독일 기업, 특히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 투자기업

○ 지원내용 :

- 독일기업의 해외수출 및 투자진출시 발생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15년까지 보증실시(수출금융제도 및 재정신용보증과 연계가능)

○ 지원요건

- 독일내 소재 기업 (독일의 이해관계 관련 프로젝트 수행시)
- 금융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 프로젝트에 적합한 자본금을 갖춘 경제성이 있는 계획
- 신규 투자 및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
- 투자 가치 평가 (프로젝트를 통한 효과 타진)
- 법적보호 (기본적으로 투자국에 효과적인 투자지원 및 보호계약이 존재하거나, 국가 내부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보장될 경우)

○ 지원내용

- 위험요소 관련 포괄적인 정보 제공
- 보증가능한 투자 : 현금, 현물 및 무형의 서비스 형식의 직접투자로 구체적으로는 지분참여, 지사 등을 통한 자본지출, 기업주주나 제 3자 은행의 지분참여와 이와 유사한 대출, 기타 재산가치권 관련 직접투자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
- 이외,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개인 컨설팅 서비스, 환경 요소와 지급에 관한 정보, 개별국가의 지지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

○ 지원관련 비용

- 보증신청시 부과되는 요금
 - 500만 유로 이하 미 부과
 - 500만 유로이상 500만 유로 이상 금액의 0.5%, 최대 10,000 유로부과
 - 보증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당 요청금액의 3/4 환급
- 수수료 : 연방정부를 통한 보증수락 후 연간자금 및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보증 수수료로 매년 보증 연도초에 지불의무
 - 연수수료는 자본 및 경우에 따라 기업이윤 보증금액에 대해 각각 연보증 금액의 0.5% 부과
 - 미실행 투자건에 대해서는 일반수수료의 1/6부과

○ 지원실적

- '99~'08년 누계 보증 규모 199억 5,400만 유로(유럽 83억 5,700만, 아시아 69억, 아프리카 37억 5,300만, 미주 9억 4,400만 유로)
- '09년 총 보증신청건수 166건, 총 101억 150만 유로 중 115건 보증, 총 30억 1,210만 유로
- 총 지원건수 24개국 76건

○ 지원사례

- '09년 함부르크 소재 석유, 화학물질 및 가스 탱크시설 운영 분야 세계 선도업체 Oiltanking GmbH('09년 당시 세계 21개국 총 1,710만^m 규모의 68개의 탱크 시설 운영) 콜롬비아 카르타게나(Cartagena)에 127,000^m 탱크 시설 및 9,300^m의 항만시설 투자 시 투자보증 신청 및 취득

영국

1. 해외진출동향(최근 3년)

- 영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1,626억 파운드로 해외투자금액의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9년에는 301억 파운드 까지 감소하였음
- 2008년 영국의 해외투자누계 총액의 53%인 5조7,891억 파운드가 유럽에 집중되었으며, 36%인 3조9,009억 파운드가 미주지역에 투자되어 있음. 국가별 주요 투자대상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스페인, 룩셈브루그, 이탈리아 순서 임
-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식품,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등이며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로 인하여 금융부분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교통, 통신, 금속, 기계분야에서의 해외투자도 감소하였음
- 투자형태로 살펴 볼 때 기업의 지분인수, 이익잉여금 재투자, 기타자본거래(기업간의 대부 및 차입)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특히 기타자본거래의 경우 2009년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함

〈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million)

해외직접투자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분투자(Equity capital)	15,612	26,819	60,143	43,842	14,628
이익잉여금재투자(Reinvested earnings)	43,555	47,878	63,738	34,903	25,843
기타자본거래(Other capital transactions)	-15,162	-29,699	38,758	8,863	-10,355
합계	44,005	44,998	162,639	87,608	30,116

자료원 : 영국통계청

* 참고 : 발표연도에 따라 해외투자통계가 조정되어 발표됨

2. 해외진출정책

- 영국정부는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과 해외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정부내 담당부처는 기업혁신부(BIS)와 외무부(FCO)이며 이들 양 기관에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는 UKTI(UK Trade & Investment)를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 UKTI는 지방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하여 잉글랜드 및 런던지역에 10개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소재의 지역개발청(RDA)과 협력하여 지원
-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수출자문관제도, 수출사절단 파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
- 주요 지원대상은 대기업 보다는 자체적인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임.

3. 해외진출지원기구

- 조직명 : UKTI(UK Trade & Investment)
 - 영국정부의 무역진흥, 해외투자 및 투자유치 역할을 담당
 - 기업혁신부(BIS)및 외무부(FCO)의 공동 소속기관
- 조직구성
 - 해외 : 96개국 공관에 1,279명(주로 외무부 소속)
 - 국내 : 1,052명
 - 본부 : 627명 (런던 : 544명, 글래스고우:47, 기타지역: 36명)
 - 잉글랜드 9개지역 : 425명 (이중 307명이 Int'l Trade Adviser임)
 - * Int'l Trade Adviser : 민간부문에서의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인사와 계약을 맺고 무역 및 투자관심 기업 지원

○ 조직도

- ① Corporate Affairs Group : 재무, 회계, 인사, 평가 등 수행
- ② International Group, Strategy & HR Gropu : 해외 네트워크 관리, 고객관리, 인사관리 및 평가
- ③ Sector Group : 주요 핵심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세미나 개최, 전시회 참가 등 지원, 정보 생산 및 전파 담당
- ④ Business Group :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기 투자기업 관리 및 고충처리, 잉글랜드 지방의 International Trade Adviser 네트워크(국내 조직) 관리. International Trade Adviser는 개별 기업고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조언을 주는 역할 수행
- ⑤ Marketing Group : UKTI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행
- ⑥ Defence and Security Organization(DSO) : 2008. 8월부터 국방성으로부터 국방관련 수출진흥업무를 넘겨 받음

4. 해외진출지원제도

□ FSI (Fiscal Stimulus Initiative)

○ 지원조직 : UKTI

○ 지원내용 : 주요국 경기부양조치 프로젝트에 영국기업의 사업 참여지원

- FSI Team은 세계각국의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재정지출(Spending package)에 대한 정보를 입수분석한 후, 그에 따라 파생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영국기업에 제공하고, 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 UKTI는 FSI Team에 지역별 전문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그 국가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임

- G20 국가의 대부분은 공개입찰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프로젝트 중 20%는 외국국적 기업에 개방되어 있음
- FSI는 20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 때에 G20 국가들간 상호 이익을 이용, 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된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지난 2011년 현재는 사실상 FSI아래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음
- 2011년 현재는 FSI에서 파생된 High Value Opportunities팀을 UKTI에서 구성하여 단순한 영국 기업들의 해외의 프로젝트 지원 보다는 해외 고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국기업들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원사례

- Modec Ltd (영국 Coventry에 소재한 배터리식 차량제조업체) : UKTI를 통해 국정부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한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FSI 제도에 접근, 성공적으로 미국 현지 업체인 Navistar와 기술제휴 및 합작계약 실시. 이 프로젝트로 미국정부로부터 39백만불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연 700여대에 불과했던 차량생산 대수를 연 4,000대까지 증산예정

□ 무역자문관 제도 (Int'l Trade Adviser)

○ 지원조직 : UKTI

○ 지원대상(지원요건)

- 영국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수출, 투자진출 및 무역을 통해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

○ 지원내용

- 해외 지역 동향 및 시장전망 등을 파악하여 고객업체에게 제공
- 수출개시 후 현지방문, 지속적인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지원사례

- Norgren : 각종 원동기, 진공펌프, 압력스위치 등 생산회사로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멕시코 철도부품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부족한 사전지식과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출이 여의치 않았음. UKTI가 주관한 멕시코 철도시장개척단(Railways Scoping Mission)에 참가하여 멕시코의 주요 철도건설 관련 업체와의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며 무역 자문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멕시코 철도시장 진입에 성공.

□ Gateway to Global Growth

○ 지원조직 : UKTI

○ 지원대상 : 2년 이상의 수출경험을 가진 혁신적인 중소기업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비용 : 무료

○ 지원내용

-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맞춤형의 전략수립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타겟 해외시장 및 산업동향 정보제공, 언어와 문화, 지적재산권보호, 외환관리 등에 대한 자문, UKTI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결, 국내 수출유경험자와의 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미 국

1. 해외진출동향(최근 3년)

- 2009년 미국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9%로(총 규모 : 35,081억불) '08년 증가율 8%를 웃돌았으나 '97년~'07년 평균 증가율인 13%에는 미치지 못했음.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연도	금액(십억불)	증감률(%)
2007	2,994.0	-
2008	3,219.7	7.5
2009	3,508.1	9.0

자료원 :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 2009년 미국의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각각 4,716억불과 4,714억불로 총 투자의 13.4%를 차지하였음.

〈2009년 해외직접투자 국별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네덜란드	6	아일랜드
2	영국	7	영국령, 카리브제도
3	캐나다	8	스위스
4	버뮤다	9	독일
5	룩셈부르크	10	호주

자료원 : 미국 경제분석국

- 산업별로는 지주회사 형태로의 투자가 총 산업 중 2007년 35% → 2008년 39% → 2009년 43%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제일 컸고, 다음은 재무 및 보험의 금융산업이 2007년 22% → 2008년 23% → 2009년 25%로 2위, 3위는 2007년 16% → 2008년 16% → 2009년 18%인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산업의 비중이 두드러짐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단위 : 십억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All Industries)	2,994.0	3,219.7	3,508.1
광업(Mining)	141.3 (5%)	153.4 (5%)	171.1 (6%)
제조업 소계(Manufacturing Total)	484.8 (16%)	484.6 (16%)	541.1 (18%)
제조업-식품(Food)	40.6	41.2	45.2
제조업-화학(Chemicals)	95.9	114.2	129.5
제조업-광물(Primary and Fabricated Metal)	22.2	20.1	23.2
제조업-기계(Machinery)	31.3	39.1	43.6
제조업-전자기기(Electronic Products)	69.5	65.5	65.6
제조업-전자부품(Electrical Equipments, Components)	20.0	23.6	24.7
제조업-운송장비(Transportation Equipments)	60.6	45.5	47.2
제조업-기타(Other Manufacturing)	144.8	135.5	162.0
도매(Wholesale Trade)	150.1 (5%)	176.9 (6%)	199.0 (7%)
정보(Information)	116.9 (4%)	135.0 (5%)	149.8 (5%)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123.2 (4%)	116.9 (4%)	114.0 (4%)
재무 및 보험(Finance and Insurance)	649.8 (22%)	688.2 (23%)	747.0 (25%)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81.3 (3%)	74.7 (2%)	77.5 (3%)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1,039.0 (35%)	1,181.3 (39%)	1,280.0 (43%)
기타 산업(Other Industries)	207.5 (7%)	208.7 (7%)	228.7 (8%)

2. 해외진출정책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대외외교정책에 중점을 두어 입안되고 시행 과정에서 수출 및 미국내 고용촉진여부를 기준으로 집행되는 특징이 있음.
- 업무수행원칙은 민간의 업무와 경쟁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입안(OPIC의 업무가 대표적임)되며 직접적인 지원은 최소한에 한정되어 있음

3. 해외진출지원기구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197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진출시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전세계 150 개국에서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해외진출시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 (Insurance on Political Risks) 및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을 지원.
- OPIC의 목적은 개발도상국과 미국기업, 미정부의 윈윈관계 시나리오 (Win-Win Scenario)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증진하는 동시에, 미국 민간부문 FDI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해 미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미정부의 해외정책을 지지함.
- OPIC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1) 환경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2)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3) 인권을 존중하며 4)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5) 상대국에 긍정적 개발 효과를 가져와야한다는 투자정책 (Investment Policy)을 충족시켜야함

〈OPIC 기본정보〉

구분	내 용
창립일	1971년
주주	미정부(Executive Office of the U.S. Government)
소재지	워싱턴 D.C.(1100 New York Ave. NW, Washington D.C. 20527)
직원수	215명

자료원 : 후버스(Hoover's)

4. 해외진출지원제도

□ 투자자금 지원(Financing)

- 지원기관 : OPIC
- 지원내용
 - 개발도상국 투자진출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기 또는 장기 자금을 직접 대부사업부분을 연수익 250백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자금조달(Small and Medium-Enterprise Financing)과 연수익 250백만불 이상의 기업 및 인프라, 통신, 전력, 수력, 공항, 자원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구조적 자금조달(Structured Financing)로 구분하여 지원함.

〈투자자금지원 세부내용〉

지원대상	OPIC 선정 개발도상국 투자진출 프로젝트 참여기업 중 신청자
지원내용	현재 르완다 차수입 장기 프로젝트(Rwanda Tea Importers) 투자대상 모집공고 중
지원금액	기업의 수요와 기업에 대한 OPIC의 재무평가결과에 따라 최소 십만불에서(\$100,000) 통상 프로젝트 총자금의 75%까지 지원 - 30백만불 이상 지원시 매분기 OPIC의 재무평가를 받아야함 - 통상 지원기간은 3년-15년이며 이자율은 연간 2%~6%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비용(cancellation fee) 등이 있음

□ 보증보험(Insurance)

- 지원기관 : OPIC
- 지원내용
 -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한 통화 불태환(Currency Inconvertibility), 자산몰수(Expropriation), 정치적 폭력(Political Violence)에 대하여 OPIC 보험은 프로젝트당 최대 20년간 250백만불까지 보증

〈투자자금지원 세부내용〉

지원대상	OPIC 선정 개발도상국 투자진출 프로젝트 참여기업 중 신청자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성격 및 기업의 수요에 따라 보험적용 기간 및 범위가 다르며 최대 20년간 투자금의 90%까지 (250백만불한도) 보장 ▪ 보험 가입비용은 프로젝트 성격별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Manufacturing Services) : \$100당 \$0.30-%0.50 - 금융업(Institutional Loans & Leases) : \$100당\$0.35-\$0.65 - 정유업(Oil & Gas) : \$100당 \$0.65-\$0.85 - 인프라개발업(Infrastructure) : \$100당 \$0.30-\$0.55 - 수입업(Exporters) : \$100당 \$0.40-\$0.60

□ 펀드투자(Investment Funds)

- 지원기관 : OPIC
- 지원내용 : 사업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펀드투자. 전문적인 펀드매니저 통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함.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펀드 혹은 기업에 장기 부채(통상 10년~12년 만기)를 대부하는 형태를 취함.
- 지원실적 : 200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OPIC는 총 36억불 규모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50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이 펀드들은 현재 53개국의 470개 기업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대다수 기업은 중소기업임.

2010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2010.2
10-004	2010년 세계시장의 뉴노멀 트렌드	2010.3
10-005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4
10-006	美·獨 강소기업에게 배운다	2010.4
10-007	요르단, 중동의 의료허브 꿈꾸다	2010.4
10-008	요르단, 중동의 의약품 수출 교두보 된다	2010.4
10-009	불황을 이긴 세계시장의 우수 중기제품들	2010.4
10-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2010.5
10-011	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산업	2010.5
10-012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국내 업계 진출확대 방안	2010.6
10-013	글로벌 주요국 3D 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2010.6
10-014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6
10-015	일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2010.7
10-016	중국의 해외 M&A 사례와 시사점	2010.7
10-017	중앙아시아 건설중장비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0.7
10-018	러시아 산불 피해 동향 조사	2010.8
10-019	신흥시장의 알파기업에서 배운다	2010.8
10-020	태국 정부조달 이렇게 접근하라	2010.8
10-021	한-페루 FTA 활용 진출전략	2010.8
10-022	한-EU FTA 발효에 대한 EU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 조사	2010.8
10-023	해외사례로 보는 모바일비즈니스 성공 비결	2010.10
10-024	인도 최대의 축제, 디왈리 특수 활용방안	2010.10
10-025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10
10-026	16억 Hallal 시장을 잡아라	2010.10
10-027	인도의 반덤핑제재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11
10-028	두바이 모라토리엄, 그 후 1년	2010.11
10-029	신흥시장 40억 저소득층에 주목하라	2010.12
10-030	GMS(메콩강유역) 개발사업 국별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2010.12

●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10-002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3
10-003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3
10-004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과 그 영향	2010.4
10-005	러시아 Skinhead 테러주의	2010.4
10-006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2010.5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7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5
10-008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PIGS 국가별 변화 양상	2010.8
10-009	주요국 기업의 CSR 활동 사례	2010.11
10-010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및 성공사례	2010.12
10-011	해외주요국 투자진출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2010.12

●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10-004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파급효과 분석	2010.3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3
10-006	2010년 1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10.3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4
10-008	2010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4
10-009	떠오르는 녹색강국 중국시장 집중조명	2010.4
10-010	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2010.4
10-011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 동향	2010.5
10-012	유럽발 경제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10.5
10-013	내전종식 후 1년, 스리랑카의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다	2010.5
10-014	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2010.5
10-015	칠레 OECD가입과 시사점	2010.5
10-016	태국 시위사태 현황과 전망, 경제 파급영향	2010.5
10-017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강소기업들	2010.6
10-018	일본 신성장전략 보고서	2010.7
10-019	2010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7
10-020	최근 세계시장 현황과 우리 수출시장의 특이동향	2010.7
10-021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 라마단(금식월)과 비즈니스 시사점	2010.8
10-022	미국 및 EU의 대이란 제재,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0.8
10-023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따른 주요국 시장 동향	2010.9
10-024	최근 엔고현상에 따른 우리 수출시장 동향	2010.9
10-025	디자인에서 '리'자인 시대로	2010.10
10-026	2010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10
10-027	美 환율법안 추진에 따른 국내업체 파급효과 전망	2010.10
10-028	일본 소비재 시장의 최신동향	2010.10
10-029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체 시사점	2010.11
10-030	베트남 동화 평가절하와 국내 업체 영향	2010.11
10-031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0년 수출전망	2010.11
10-032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우리 수출시장 동향 점검	2010.11
10-033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해외 바이어 및 투자가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2010.11
10-034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자동차 부품 바이어 설문 조사결과 분석	2010.12

● KOCHI 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KOTRA가 바라본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	2010.2
10-002	세수로 보는 2010 중국경제	2010.4
10-003	KOTRA가 선정한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2010.4
10-004	상하이 엑스포 참가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4
10-005	상하이엑스포 이후 중국, 이렇게 바뀐다	2010.4
10-006	아시아, 대양주 녹색시장 현황 및 협력방안	2010.5
10-007	중국 내수 신흥유망시장 공략 설명회	2010.7
10-008	올해 중국 히트상품은 이것	2010.7
10-009	주목해야 할 중국의 2,3선 도시들	2010.7
10-010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0.7
10-011	독일기업 사례로 본 중국시장 진출 전략	2010.10
10-012	10년의 대개발, Mega시장으로 떠오른 中 서부	2010.10
10-013	상하이 엑스포 200% 활용한 우리기업	2010.10
10-014	중국 온라인 시장, 빅뱅 마켓을 잡아라	2010.11
10-015	상하이 엑스포 국가브랜드 제고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11
10-016	미래 중국시장, 우리기업 성공 전략	2010.12
10-017	KOTRA가 선정한 2010년 중국경제 10대 핫이슈	2010.12
10-018	日 기업, 중국시장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	2010.12
10-019	중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웰빙제품	2010.12
10-020	중국경제 2011, 그리고 향후 5년	2010.12

● FDI Them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10-002	글로벌 기업의 CVC 운영현황 및 투자동향	2010.3
10-003	글로벌기업의 일본내 사업 철수, 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2010.3
10-004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3
10-005	'10년 1분기 미국·일본·유럽 대한투자현황 및 향후전망	2010.6
10-006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010.6
10-007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7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중동 국부펀드의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	2010.10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년 1000대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1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1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1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1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2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세계 발주처 및 발주임박 프로젝트 (최신판)	2010.2
10-012	중동·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10-013	[ITS]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4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5	[태양광]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6	2009 중국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7	2009 일본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8	중국 상품류 구분집	2010.3
10-019	한·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0.3
10-020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케냐)	2010.5
10-021	주요국 Smart Grid 정책/시장 조사	2010.4
10-022	'09년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4
10-023	그린리포트 (Vol 7. 2010 Spring)	2010.4
10-024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Network 2010	2010.4
10-025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유럽편	2010.4
10-026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미주편	2010.4
10-027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아시아/대양주편	2010.4
10-028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10.4
10-029	북미 온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 전략	2010.4
10-030	200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0.5
10-03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9	2010.5
10-032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2010.5
10-033	중동유통시장공략포인트	2010.6
10-034	주요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6
10-035	주요산업별 FDI 프로젝트 동향	2010.6
10-036	우리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2010.6
10-037	SW수출강국도약-이스라엘성공사례분석	2010.6
10-038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6
10-039	중동CIS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6
10-040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2	그린리포트(Vol 8. 2010 Summer)	2010.6
10-043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2010.6
10-044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상)	2010.7
10-045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하)	2010.7
10-046	몽골 투자 가이드	2010.7
10-047	국가 및 산업 브랜드 맵	2010.6
10-048	20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결과보고서	2010.7
10-049	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2010	2010.8
10-050	국내주요기관 해외네트워크 2010	2010.9
10-051	2010년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10.9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52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3	주요국 통신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4	주요국 IT부품시장 진출가이드	2010.9
10-055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상)	2010.9
10-056	주요국 SW.정보보호시장 진출가이드(하)	2010.9
10-057	주요국 10대 유망 소프트웨어	2010.9
10-058	2009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0.9
10-059	그린리포트(Vol 9. 2010 Autumn)	2010.10
10-060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2010.10
10-061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2010.11
10-06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0.11
10-063	2010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0.11
10-064	해외진출종합가이드 (개정판)	2010.12
10-065	중동의 미개척 시장을 가다	2010.11
10-066	주요국 IT유통망 진출가이드	2010.11
10-067	Guide to Living in Korea 2011	2010.12
10-068	韓國生活 가이드북 2010	2010.12
10-069	브라질 이리닝 시장동향	2010.12
10-070	칠레 이리닝 시장동향	2010.12
10-071	주요국 LED 진출가이드	2010.12
10-072	주요국 네트워크 진출가이드	2010.12
10-073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연구	2010.12
10-074	中國對外投資和韓國吸引外資政策研究	2010.12
10-075	2010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환경 애로조사	2010.12
10-076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연구	2010.12
10-077	UNCTAD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10-2012	2010.12
10-078	성공하는 기업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크로스마켓	2010.12
10-079	글로벌 이동통신사 구매성향 분석	2010.12
10-080	세계 소프트웨어 파트너정보 Who is who? - 아대양주 -	2010.12
10-081	세계 소프트웨어 파트너정보 Who is who? - CIS/미주 -	2010.12
10-082	세계 소프트웨어 파트너정보 Who is who? - 유럽/중동아프리카 -	2010.12
10-083	주요국 해외투자상담사례집	2010.12
10-084	Green Hub Korea 2010 결과보고서	2010.12
10-085	스위스 제약 및 바이오테크산업을 가다	2010.12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10-003	“물류센터를 활용한” 북미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전략설명회	2010.3
10-004	세계 전력 시장 진출 설명회	2010.3
10-005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과 사업기회	2010.3
10-006	[ITS]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7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8	인도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성공전략	2010.3
10-009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3
10-010	GATEIII 글로벌 바이오기술 투자세미나	2010.3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11	KOTRA 중남미클럽 창립 포럼	2010.3
10-012	2010 글로벌 채용박람회	2010.3
10-0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 상품관 설명회	2010.4
10-014	제 2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5
10-015	2010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0.5
10-016	GE 투자설명회	2010.5
10-017	Global Project Plaza 2010	2010.5
10-018	Global Project Plaza 2010 - Asia Session	2010.5
10-019	Solvay Venture Initiative	2010.6
10-020	인도 비즈니스 포럼 창립 세미나	2010.6
10-021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010.6
10-022	중동CIS 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2010.6
10-023	중남미 클럽 2차 포럼	2010.6
10-024	<핵심고객 초청> 중남미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5	<핵심고객 초청> CIS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6	<핵심고객 초청> 인도.베트남 시장진출 설명회	2010.8
10-027	중남미 이리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0.9
10-028	Merck Venture Initiative	2010.9
10-029	KOTRA 중남미클럽 3차 포럼	2010.9
10-030	제 3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9
10-031	EU 상표 · 디자인 출원 설명회	2010.10
10-032	Global Marine Tech 2010 세미나	2010.10
10-033	제 2회 국제 카본 포럼	2010.10
10-034	한-EU 그린산업 컨퍼런스	2010.10
10-035	제 2회 한-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2010.10
10-036	2010 한-중 지재권(IP) 보호전략 포럼	2010.10
10-037	북미 · 유럽 온라인유통 설명회	2010.10
10-038	Green IT: Display/LED 2010	2010.11
10-039	신시장, 신기회 미개척 전략지역 투자진출 설명회	2010.11
10-040	중국, 베트남 해외투자전문가초청 설명회 개최	2010.11
10-041	제 3회 해외진출지원기관 워크숍 개최	2010.11
10-042	2010 해외 투자 우수사례집	2010.12
10-043	GMS 개발사업 진출전략 설명회	2010.12

작성자

◆ 싱가포르 KBC	윤희정
◆ 타이베이 KBC	송익준
◆ 도쿄 KBC	최정락
◆ 상하이 KBC	정준규
◆ 뉴욕 KBC	문서영
◆ 암스테르담 KBC	박병국
◆ 런던 KBC	이석호
◆ 프랑크푸르트 KBC	김연재
◆ 해외진출종합지원팀	심재희

Global Issue Report 10-011

해외 주요국 투자진출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발행인		조환익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0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Copyright © 201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